

영암F1 외국인 관람객 예약 줄이어

방콕·홍콩·오사카·몽골 등 1300명 전세계 6편 확정

해외 관람객 1만명 유치 관심

다음달 영암에서 열리는 F1(포뮬러 원) 코리아 그랑프리를 직접 보려는 해외 관람객들의 예약이 잇따르면서 대회 조직위원회가 세워놓은 '외국 관람객 1만명 유치'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23일 F1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한국 F1대회를 관람하기 위해 전세계 6편과 일본 고속여객선 1편, 특별관광열차 2편 등이 확정된데 이어 추가 전세계 문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확정된 전세계기는 방콕 240명, 광저우 170명, 홍콩 170명, 심천 170명, 항저우 170명, 오사카 170명, 몽골 170명 등 총 1300여명이며 일본JR슈우고속선과 고급 침대열차 해랑편도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다.

이번 전세기편에는 몽골에서까지 F1관람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숙소 예약과 전단지 지역 관광일정까지 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직위는 이번 대회에 유럽과 미주 지역 4000명, 중화권 2500명, 일본 2000명, 기타 1500명 등 총 1만명을 목표로 외국인 관람객 모집에 나서고 있다.

특히 K-POP 콘서트가 열리는 15

일에는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티아라, 레인보우, FT아일랜드, 다비치 등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을 보려는 동남아권 관람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 취재진의 코리아 그랑프리 홍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유로스 포츠 채널의 취재를 시작으로 요르단 JR방송사, 카타르 알자즈라, 중국 상하이 기자단, 홍콩기자가단이 다녀간데 이어 미국 블룸버그와 중국 신화통신, 미국 CBS 등도 영암시장을 다녀갈 예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한국대회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목표치를 상회하는 외국인의 영암 방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F1 코리아 그랑프리 관람객 외국인은 모두 6000여명이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서구 신청사 개청

광주 서구 신(新)청사 개청식이 23일 오후 서구 농성동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개청식에는 강운태 광주시장, 조영택·김영진·이정현 국회의원, 최영호 남구청장, 송광은 북구청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서구 신청사는 농성동 옛 소방본부 부지에 499억을 투입, 2009년 3월 착공했다. 대지면적 1만7000여㎡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이며, 본청을 중심으로 보건소와 의회가 날개 모양으로 자리잡고 있다.

옛 광주 서구청사 2년간 120억 투입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만든다

이정현 의원, 국비 확보

옛 광주 서구청사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예결위위원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광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 120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 서구청사를 전면 활용하여 2년 동안(2012~2013년)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하게 될 것이며, 1년차 2012년 예산으로 50억원이 정부안에 최종 확보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사업은 광주 시나 부처 예산요구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사업으로 100% 전액 국비로 지원될 것"이라고 밝힌 뒤 "광주가

아시아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단체의 중심적 역할 증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예산 반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당초, 서구청에서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 악화로 광주시에 구청사를 매입, 시립도서관을 신축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시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의원은 광주시와 서구청의 상황을 확인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와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 전액 국비로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업을 현실화시켰다.

정부의 예산 반영에 따라 서구 구청사 본관은 해체를 통해 공연장으로 거듭나게 되며 별관은 개보수를 통해 사무실로 재활동된다.

이 의원은 "광주 문화예술인을 위한 창작공간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활동이 가능해지면 보다 수준높은 문화예술과 예술적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4년 연속 여당 예결위위원을 맡아 맹활약하고 있는 이정현 의원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호남 예산 지킴이'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법부 신뢰 아직 멀었다”

보성 출신 이용훈 대법원장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 27일 취임

이용훈(70) 대법원장이 파란만장했던 6년 임기를 마치고 정든 법원을 떠났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3일 대법원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신뢰를 얻을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이 아래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국민의 신뢰도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자평했다.

또 "국민이 여망하는 사법부와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틈새가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국민의 신뢰라는 바탕 없이는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사법의 목표를 결코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재임기간 내내 불잡고 있던 '사법부의 독립'이란 화두를 끝까지 놓지 않았다. 그는 "지난 사법의 역사는 사법부 독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독립을 지키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며 "민주화를 제대로 이뤘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는 도처에 산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사법부가 최종 분쟁해결기관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퇴임식 후 청사를 떠나고 있다.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를 하다가 대법원장으로 돌아왔던 이 원장은 이번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거듭나야 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정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당위론을 강조했다.

보성 출신으로 광주일고, 서울법대를 나와 고등고시 사법과(15회)에 합격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1968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1994년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1998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 2000년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 5년간 변호사 생활을 거쳐 2005년 대

법원장에 취임했다.

합리적 원칙론자인 이 대법원장은 '법원내 재야'로 불릴 만큼 강한 개혁 성향으로 주목받았고 깨끗한 처신으로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

한편 양승태(63·사법연수원 2기) 신임 대법원장은 25일 0시를 기해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양 대법원장은 26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정오께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식은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방사선 보호장비 대부분 노후화

광주·전남 방사선량률 측정기 등 129개 사용기간 초과

광주와 전남 소방당국이 보유한 방사선 보호 장비 대부분이 오래돼 노후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한나라당)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 원전·방사능 관련 인력 및 장비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 소방본부가 보유한 방사선 보호복 35개 중 34개가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이었다. 또 방사선량률 측정기는 보유 물량 21개 모두가 사용 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또한 방사선 보호복 35개 중 17개가, 방사선량률 측정기는 57개 전부 내용이 초과된 상태에 이르렀다. 또 원전사태가 일어났을 때 출동하는 대테러 긴급구조대원은 광주(광산구조대) 29명, 전남

(화취구조대) 22명에 불과했다.

특히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한명도 없는데다 전문교육 이수자도 광주와 전남이 각각 2명과 5명에 불과했고, 화공기사나 방사선 비파괴 검사 등 관련 자격 보유자(기능사 이상)도 각 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인력은 자체 교육 동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소방당국은 일본 원전 사고를 교훈 삼아 장비와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고 외국 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정교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며 원전 및 방사능 사고 시 대응 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부적합 자재 발생

영광원전 287건 최다

영광원전이 국내 원전 가운데 부적합 자재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경환(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받은 원전 부적합 자재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2~2011년 4월 기준 부적합 자재 발생 건수는 영광원전이 2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진 원전 257건 ▲월성원전 210건 ▲고리 원전 177건 순이다.

부적합 자재는 자재의 입고 및 검수 단계에서, 발전소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2010년까지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부적합 자재 중 약 36%(281건)는 인수 검사 시, 약 64%(505건)는 원전 발전소 운영 단계에서 드러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 양식장 직영도·소매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번만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돌잔치, 피로연, 세미나 각종 모임 및 행사 (500석 완비)

소모임(룸) : 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대모임(룸) : 52인석, 92인석, 150인석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일				토·일·공휴일			
이용시간	성인 (중학생 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아동 (5세~7세)	이용시간	성인 (중학생 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아동 (5세~7세)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 금요일 DINNER는 주말요일로 적용됩니다.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 671-1199
유·스퀘어 문화관 2F CGV 옆 터미널 2층